

# ‘운명의 한일전’ 흥명보호, 동아시아 왕좌 놓고 격돌

15일 동아시아컵 최종전…6년 만에 통산 6번째 우승 도전  
골 득실 뒤져 이겨야 우승…필승 전략 놓고 베스트11 선정

한국 축구 대표팀이 숙적 일본과 ‘동아시아 챔피언스컵’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흥명보호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15일 오후 7시 24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최종 3차전을 치른다. 풀리그 방식으로 치러지는 동아시아컵은 중국 우한에서 열린 2015년 대회 이후 이번까지 4차례 대회에서 ‘동아시아 양강’ 한국과 일본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맞붙는다.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홍콩과 중국을 상대로 2승씩을 올린 터라 지난 3차례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마지막 한일전에서 챔피언이 결정된다. 중국에 3-0, 홍콩에 2-0으로 이긴 한국(+5골)은 홍콩, 중국을 상대로 각각 6-1, 2-0 승리를 거둔 일본(+7골)에 골 득실에서 뒤진 2위다. 최종전에서 비기면 일본이 골 득실로 앞서며 우승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2022년 대회에서 일본에 빼앗긴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을 수 있다.

한국은 2019년 대회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6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일본은 한국만 이뤄낸 동아시아컵 연속 우승을 노린다. 한국은 2015, 2017년 대회를 석권해 대회 첫 연속 우승을 달성했으며 곧이어 2019년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라 3연패를 이룬 바 있다. 우승하려면 반드시 골이 필요한 만큼, 흥명보호 공격수들의 발끝에 눈길이 쏠린다. 한국에서는 ‘도쿄리’ 이동경(김천), 주민규(대전), 이호재(포항) 등 공격수들을 비롯해 미드필더 강상운(전북), 센터백 김주성(서울) 등이 이번 대회에서 골 맛을 봤다. 홍콩과 중국전에서 각각 완전히 다른 11명 선발 명단을 적어내며 큰 폭으로 선수들을 테스트한 흥명보호 감독은 최종전은 한일전으로 펼쳐지는 만큼 ‘필승’을 지상과제로 놓고 최상의 자원을 엄선했다. 베스트 11을 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규, 이호재, 오세훈(마치다) 등이 경쟁하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는 유럽파 선수들의 경쟁

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포지션이어서 어떤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해 흥명보호 감독의 눈도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일본 대표팀은 K리그 23명, J리그 3명으로 구성된 한국과 비슷하게 전원 자국 J리그만으로 팀을 꾸렸다. 앞선 두 경기에서 도합 8골을 연사한 공격진의 활약이 예상되지 않아 흥명보호 수비진은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전에서 4골을 몰아친 30세의 혼혈 베테랑 저메인 료(산프레체 히로시마)를 필두로 이나가키 쇼(나고야 그램퍼스), 나카무라 소타(산프레체 히로시마), 호소야마오(가시와 레이슬), 모치즈키 헨리 히로키(마치다) 등이 이번 대회 득점을 기록했다. 이들 외에도 올 시즌 J리그에서 득점 랭킹 공동 4위(일본인 1위)를 달리는 미야시로 다이세(빗셀 고베), 기타가와 고야(시미즈 S펄스·이상 8골) 등이 일본 대표팀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일본과 상대 전적에서 42승 23무 16패로 앞서지만,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3무 4패로 밀리는 데다 2연패 중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에 치른 2021년 3월 일본 요코하마 평가전과 2022년 7월 나고야에서 벌인 동아시아컵 맞대결에서 거푸 0-3으로 완패했다. /연합뉴스



11일 경기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남자부 2차전 한국과 홍콩의 경기. 골을 넣은 한국 이호재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찬울 마수걸이 골’ 전남드래곤즈, 홈 2연승 질주

K리그2 20R 경남에 1-0 승  
2위 수원삼성 4점 차 추격

전남드래곤즈가 홈에서 연승을 달리면서 2위 수원삼성을 4점 차로 추격했다. 전남드래곤즈가 12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하나은행 K리그2 2025 20라운드 경기에서 임찬울의 시즌 마수걸이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앞선 19라운드 ‘1위’ 인천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에서 2-1 승리를 가져왔던 전남은 연승을 달리면서 선두권 싸움에 재시동을 걸었다. 3-5-3 포메이션을 준비한 전남 김현석 감독은 발디비아, 하남, 임찬울을 최전방에 배치해 경남 골대를 겨냥했다. 김예성과 U22자원인 박상준, 알베르피, 김주엽이 중원을 지켰고 최정원-고태원-유지하로 백 3가 구성됐다. 그리고 최봉진이 골대를 지켰다. 전남이 실점 위기를 넘긴 뒤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11분 중원에서 전남의 패스 미스가 나왔고 경남 단레이가 공을 잡고 질주에 나섰다. 단레이가 공을 물고 전남 박스까지 진입했지만 최봉진이 몸을 날려 슈팅을 저지했다. 전반 13분 이번에는 전남이 중원에서 경남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 경남의 패스가 알베르피 맞고 왼쪽에 있던 발디비아에게 흘러갔다. 알베르피가 중원으로 침투하자 발디비아가 공을 넘겼다. 그리고 알베르피에게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슈팅이 아닌 패스가 나왔고, 오른쪽에 있던 임찬울에게 공이 연결됐다. 뒤늦게 상대가 슬라이딩



전남 임찬울이 지난 12일 홈에서 열린 경남과의 K리그2 20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13분 선제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을 하면서 슈팅 저지에 나섰지만 임찬울이 오른발로 때린 공이 상대 박재환의 발 맞고 굴절되면서 경남 골대 안으로 향했다. 이와 함께 임찬울의 시즌 1호골, 알베르피의 5호 도움이 기록됐다. 전남은 최봉진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경남을 저지하면서 1-0으로 전반전을 끝냈다. 그리고 후반 두 차례 전남의 골망이 흔들렸지만 실점은 기록되지 않았다. 후반 시작과 함께 경남 박기현이 오른발로 전남 골대를 갈랐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VAR) 온필드 리뷰 결과 슈팅 과정에서 최한솔과 몸싸움을 하던 박기현의 푸싱 파울이 선언되면서 득점은 무효가 됐다. 후반 26분에는 경남 단레이가 헤더로 전남 골망을 흔들었지만 이번에도 득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앞서 크로스를 올린 해난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전남은 1-0의 리드를 지켰다. 이후 9분의 후반 추가시간이 주어졌지만 전남이 남은 시간 골대를 잘 지키면서 홈에서 승점 3점을 챙겼다. 두 차례 무효골 선언에 윤경남은 6경기 연속 무승(1무 5패) 부진을 이어갔다. 홈에서 ‘대어’ 인천을 뺏았던 전남은 분위기를 이어 연승에도 성공하면서 수원을 상대로 눈길 끄는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전남(10승 7무 3패·승점 37)은 오는 19일 오후 7시 승점 4점 차 앞에 있는 2위 수원(12승 5무 3패·승점 41)을 상대로 홈에서 3연승을 노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컴파운드 양궁, 7년 만에 월드컵 남자 단체전 금

최용희·김종호·최은규, 결승서 프랑스에 235-234 승리

한국 컴파운드 양궁 남자 대표팀이 7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최용희, 김종호(이상 현대제철), 최은규(울산남구청)로 팀을 꾸린 한국은 1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4차 대회 다섯째 컴파운드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

를 235-234로 물리치고 시상대 정상에 섰다.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것은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2018년 2차 대회 이후 7년 만이다. 당시에도 최용희와 김종호가 남자 대표팀의 주축이었다.

한국은 올해는 안탈리아에서 치러진 3차 대회에서 이 종목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올림픽 종목이 아니었던 컴파운드 양궁은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컴파운드 대표팀은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비롯해 여자 단체전 동메달, 혼성 단체전 은메달, 여자 개인전 동메달 등 메달 4개를 수확하며 이번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전남도청 서창완, 근대5종 세계선수권 동메달

성승민과 혼성계주서 활약…종목 개편 이후 국제대회 첫 메달

전남도청 서창완이 종목 개편 후 치러진 근대5종 계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첫 메달리스트가 됐다. 서창완은 지난 10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5 계주 세계선수권대회 혼성계주에서 성승민(한국체대)과 동메달을 합작했다. 이번 대회는 승마가 장애물 경기로 대체된 이후 치러진 첫 세계선수권대회이다. 펜싱 238점, 장애물 315점, 수영 535점을 기록한 서창완과 성승민은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375점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수영에서 전체 2위 성적을 내는 등 상위권 경쟁을 펼친 이들은 세 번째로 출발한 마지막 레이저 런에서 순위를 유지하면서 3위에 올랐다. 이집트의 모하나드 사반-파리다 칼릴이 1422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레오 보라-데르발 마틸드(프랑스)가 은메달(1415점)을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던 서창완은 종목 개편 이후 첫 국제대회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서창완은 지난 대회에서는 혼성계주와 남자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5 계주 세계선수권대회 혼성계주에서 동메달을 합작한 성승민과 서창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주에서 각각 김선우, 전용태와 호흡을 맞춰 금메달을 이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3위에 오르며 아시아 여성 최초로 근대 5종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성승민은 3개 대회 연속 메달 수집에 성공했다. 성승민은 지난 5월 불가리아 파자르니크에서 열린 제3차 월드컵과 지난 6일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월드컵 파이널에서 연달아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2025-07-12(토) 11:00, 13:00 / 북구 문화근린공원

2025-08-02(토) 13:00, 15:00 / 청단 국립광주과학관

2025-08-03(일) 13:00, 15:00 / 청단 국립광주과학관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담다

조 선 아

Choo Sun A Solo Exhibition

2025. 7.11. ~ 8.10.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조선아 개인전 : 시간을 담다

일시 : 2025-07-11(금)~2025-08-10(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